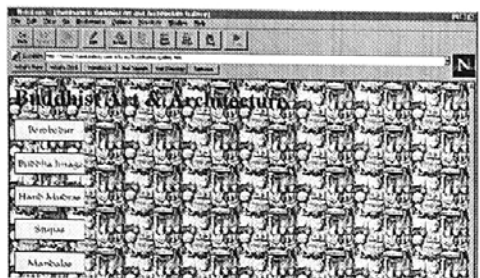


불교사이트 여행



부다넷 '불교예술과 건축'

보로부두르 사원을 비롯 인도네시아 불교예술과 그 상징성을 감상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

상세한 설명을 제공해 주고 있어, 불교 건축예술의 식견을 함양하는 한편 석탑 기초자료로도 유용하다.

세계 최대 보로부두르사원 유적 불만

있는 불상·수인·탑·만다라 등의 사진과 더불어 각 건축물이 갖는 의미를 열람할 수 있다.

부두르 사원은 약 8세기경부터 100년에 걸쳐 건축했던 고대 사원으로 인도네시아의 관광명소이다.

“간화선 인도 선사상과 다르다” “초기경전 현대과학이론 포괄”

김호성씨 '선관의 대승적 연원 연구'

김호성씨(동국대 강사)는 박사학위 논문 '선관(禪觀)의 대승적 연원 연구'에서 중국에서 발달된 선불교의 연원이 고대 인도의 철학적 전통인 禪觀이며, 이 선관의 전통을 독자적으로 수용하여 독특한 선불교로 발전시키고 있음을 주요 대승경전의 자료를 통해 입증했다.

김 씨가 이를 입증하기 위해 논거로 제시한 것은 <유마경>



중국 禪 마조이후 흐름 달라져 인도 대승경전 선교회통론 입증

<화엄경> <금강경> <능가경> 등의 경전에 대한 논리적·철학적·수행적 입장. 김씨는 논리적 입장의 논거로 금강경에서의 '즉비(即非)의 논리'(A는 A가 아니다. 그러므로 A라고 이름한다)는 결국 空의 논리이며, 화엄경의 '상즉(相即)의 논리'(하나(A)와 전체(B) 사이에 성립하는 논리 A와 B는 서로 부분이 될(相入)과 동시에 동일하다는 것)로 A와 B 모두 空이므로 A와 B 사이에는 상입상즉(相入相即)이 성립함을 제시했다.

갖고 있는 사회윤리의 실천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선사상은 인도의 대승불교 경전 속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며, 이렇게 볼 때 중국 초기의 선종에서는 인도 대승불교의 선사상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재성씨 '초기불교의 연기성 연구'

전재성씨(한국불교대 교수)는 박사학위 논문 '초기불교의 연기성(緣起性) 연구'에서 초기 경전에 나타난 불교적 인과성은 흥적인 원리와 분계적인 과학철학적 인과행식을 모두 포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약무차즉무피(若無此即無彼·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게 된다)와 약멸차즉멸피(若滅此即滅彼·이것이 소멸하므로 저것이 소멸한다)의 원리를 부가함으로써



“우주 보편적 법칙 인과론서 출발 숙명론·우연론적 사고 철저히 배격”

조건적인 구속에서 벗어나는 해탈의 길을 제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조건성과 수반성이 모두 함축돼 있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우선 조건성이란 어떤 조건에 의해 결과가 수반된다는 것이며, 수반성이란 원인과 결과가 함께 생겨나는 동시적인 것과 원인과 결과가 분리되어 나타나는 계기적인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생각한다면 선 자체가 바로 조건이 되며, 따라서 모든 사건이 소멸하지 않는 한 생성을 계속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존재의 계기와 조건에 의존성을 중요시 한 서양의 경험론 철학자 흄의 원리와 조건의 단순한 반복이 아닌 수동적 법칙성을 생산성의 원칙으로 전환해 존재론적인 면모를 보여준 분계의 원리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인과성의 원칙에 부다가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원리를 도입해 인과세계에서 강한 인과적 결정론(숙명론)이나 비결정론(우연론)을 주의깊게 배격한 것은 바로 이 수반적 자유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한명우 기자

철학·종교 과학 종속화 우려

사회비판·정신순화기능 잃어

찰스 멀러교수 논문서 지적

“과학적 방법론의 가치가 지나치게 요구되는 현대사회에서 철학과 종교는 결국 과학과의 동등성을 잃고 종속될 지도 모른다.”

찰스 멀러(일본, 도쿄가쿠엔대) 교수는 최근 논문 '신앙:현대적 위기'에서 현대 과학명예에 종속돼버린 종교는 사회적 순기능인 비판과 정신순화 기능이 상실되어 '음진 순교'와 같은 맹목적인 종교 집단 출현의 악순환이 계속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멀러교수는 이미 19세기 말부터 니체(독일) 알터저(미국) 니쉬타니(일본) 등이 '종교·철학의 부재시대' 도래를 예견했다고 말하며, 일본이 세계 대전기간 중에 유교와 제국주의를 적당히 결합시킨 종교교육을 신랄한 역사적 실례를 들어 종교의 위기를 말했다.

또한 멀러교수는 “과거에는 종교가 사회의 가치관 형성에 사회적 배경을 제공했지만 현대에 이르러 종교 보다는 물질주의가 사회윤리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그래프(미국)의 주장

오종욱 기자

“미래를 위한 열린 마음으로 불교와 기독교 나누는 종교적 당파성에서 탈피해 도덕적, 종교적인 교육으로 재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를 위해 “교육에 종교를 포함시켜 현대인이 비판적인 분석을 통해 정신적인 자각(自覺)을 개발해 낼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앙:현대적 위기”는 <http://www2.got.com/users/acmuller/dayoril.htm>에서 원문을 구할 수 있다.

학·술·단·신

동양사상주제 국제토론회

8월27~28일 힐튼호텔

동양철학과 중국 인민일보 오는 8월 27~28일 이틀간 서울 힐튼호텔에서 '동양사상과 사회발전'을 주제로 국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한국 중국 일본 영국 베트남 등의 석학들이 대거 참석하는 이번 토론회에서 이기영 박사(한국불교연구원장)는 '동아시아 3국의 불교와 문화'를 주제로 동양문화 속에서 미래를 헤쳐나갈 지혜와 힘을 바탕으로 한 문화창조에 대해 발표한다.

‘한국학보’ 제83집 펴내

일지사는 최근 회화사, 건축사, 조각사 등 한국미술사학 연구 50년을 돌아본 <한국학보> 제83집(96년 여름호)을 펴냈다.

특히 '한국학 연구 50년' 집짐-한국미술사학 편'에서는 '해방 50년 한국회화사 연구'(홍선표) '한국 건축사 연구 50년'(이강근) 논문을 통해 일제시대 이후 왜곡된 회화사와 맥이 끊긴 건축사학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다루고 있다.



권영한 백양사 항적당

義天敎海從通(의천교해종공통) 獅子窟中無異獸(사자굴중무이수) 象王行處絕狐跡(상왕행처절호적) 日昇空無點點(교일승공무점점) 百億須彌列面前(백억수미열면전) 峰巒透出插青天(봉란투출삽청천) 浮雲薄霧何能到(부운박무하능도) 一拳拳倒黃鶴樓(일권권도황학루) 一踏踏翻鸚鵡洲(일택택번앵무주) 有意氣時添意氣(유의기시첨의기) 不風流處也風流(불풍류처야풍류)

馬駒鳴下裏家風(마구갈하상가풍) 四海從茲信息通(사해종자신식통) 烈日炎中擲得月(열일염중적득월) 巍巍獨坐大雄峰(의의독서대웅봉)

용은 뜻 밝은 도리 막힘없이 통함이며 사자가 사는 곳엔 다른 짐승 살 수 없고 코끼리 가는 곳에 여우 자취 사라짐이 밝은 해 떠 오름에 어둠이 사라짐처럼 겹겹이 쌓인 수미 눈 앞에 나타나고 높고 높은 봉우리가 푸른 하늘 치솟으니 뜬 구름 열은 안개 어찌 능히 이룰수가 한번의 주먹질로 황학루가 무너지고

밝은 해 떠오르니 어둠 사라지네

발길질 한번 함에 영무주가 뒤집히니 기상이 있을 때엔 기상을 더해 주고 풍류가 없는 곳엔 풍류가 찾아온다. 망아지 할 소리에 들은 가풍 사라지니 사해가 이를 쫓아 소식이 통하고 맹렬한 불길 속에 찾던 달 걸졌더니 높고 높은 영웅봉에 외로이 자리피네.

해설 매우 긴 내용의 이 주련은 법열의 기쁨을 나타낸 것이다. 법열이란 법을 듣거나 생각하거나 행함으로 얻는

위없는 기쁨을 말한다. 또 지리를 체득한 후에 누리는 기쁨을 법열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법이나 진리란 부처님이 깨달은 바의 진리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우주법계에서 불도 없는 법을 깨달은 이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는가. 선사들의 오도송들이 막힘이 없고 걸림이 없는 경지에서 터져나온 기쁨의 언어 그 자체인 것을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작자를 알 수 없는 이 주련의 내용도 매우 활달한 기상으로 일관되고 있다. 법의 본체가 되어버린지라 분별하고 따질 것도 없다. 상식과 타산을 초월한 것이다. 한번 주먹질과 발길질로 황학루와 영무주가 무너지고 뒤집히는 것도 사고의 틀을 벗어난 자리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황학루와 영무주는 중국의 역대 풍류객들이 노닐고 찬탄해 마지 않던 절경이다. 말이 할구들을 토해내고 사해로 통하지 않음이 없는 경지 역시 진리를 터득한 자리에서 가능한 것이다.

항적당의 주련은 깨달은 자의 노래지만 그 노래를 듣는 우리들도 마치 깨달은 사람이 된듯한 감동을 준다. 그 감동 속에 있는 동인은 우리도 깨달은 중생인 것인가. <인동 경언중 교사>

Advertisement for '부적 제작 비법 공개' (Public Release of Amulet Making Secret). Includes text about the efficacy of amulet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publisher, Yaksanwon.

Advertisement for '사랑의 가정... 여름 행복 찾기 선언!' (Love of Home... Summer Happiness Declaration!). Promotes a 'Borissuam Family Camp' with details on dates, location, and activities.